

알립니다

제11회 강원경제인상 공모

도 대표 우수기업을 찾습니다

8월10일 마감 5개 부문 상금 7천만원

강원도를 대표할 우수 기업을 찾습니다. 창간 72주년을 맞은 강원 일보시는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도전의식을 바탕으로 경영 혁신을 이뤄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기업을 선정해 강원경제인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강원경제인상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경제분야 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신(新)사업 발굴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조기업상, 우수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성과물 거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상, 건설 부문 활성화를 위한 건설혁신상, 성장 가능성이 무궁한 창업기를 발굴하기 위한 창업성공상 부문상과 특별상을 운영합니다. 시상식은 9월19일부터 이틀간 전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리는 2017 강원경제인페스티벌에서 갖습니다. 강원경제인페스티벌은 도내외 경제인 500여명이 참석해 강원경제의 비전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비전 창출의 장입니다. 강원 기업인 최고의 영예인 강원경제인상에 중소기업과 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2면에 계속

강원일보

올림픽 추경예산 557억원 확보

국내외 홍보 박차... 붐업 탄력
쇼핑센터·음식관광 활성화 추진

도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557억원을 확보해 대회 붐업(Boom Up)에 탄력이 생겼다. ▶관련기사 4면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도가 요청한 평창올림픽 예산을 포함한 총 11조333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보한 올림픽 예산은 7개 사업에 총 557억 3,500만원이다. 도는 새 정부 일자리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속에서도 당초 요청액 677억원 대비 82%를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부적으로 △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230억원) △문화올림픽 붐업(152억5,000만원) △올림픽 도시경관 개선(35억6,0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강원쇼핑센터 운영(38억원) △한국음식관광활성화(10억원) △올림픽 손님맞이 숙박개선(9억2,500만원) △오대산·자연명상마

을 조성 사업(82억원) 등이다. 올림픽 홍보를 위한 국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올림픽 홍보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도는 올해 300억원 예산을 자체 편성해 국내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예산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도는 이와 별도로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보통교부세 약 380억원(추정)을 추가로 확보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차 추경에서 선제적으로 일자리 확충을 위해 1,2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380억원 중 상당액은 올림픽 예산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올림픽 운영인력 지원(37억원), 비등 록 미디어센터 운영(12억원), 환경올림픽을 위한 경기장 시면녹화 기반 조성(7억7,000만원) 사업에는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현기자

알립니다

제11회 강원경제인상 공모-1면에서 계속

◇시상 부문 및 내역

부 문	시상 내역
창조기업상	트로피 및 상금 3,000만원
연구개발상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건설혁신상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창업성공상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특별상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추천 대상

혁신적이고 우수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일자리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업.

◇추천인

도지사, 시장·군수, 도내 7개 상공회의소 등 경제 기관·단체장 (강원지방조달청장,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농협 강원지역본부, 신한은행 강원본부, 강원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도지회 등)

◇접수기간 : 8월10일(목)까지 도착분

◇시상식 : 9월19-20일 강원랜드 하이원호텔

◇접수처 : 강원일보사 편집국 경제부 (033)258-1340-2

◇제출서류

△추천서, 공적조서 1부

△개인 및 기업·단체 소개서 각 1부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추천 양식은 강원일보 홈페이지(www.kwnews.co.kr)에서 다운로드.

【 2017.7.24(월) 강원도민일보 】

2018평창동계올림픽 현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현황

사업명	요구액(만원)	반영액(만원)	사업 주요내용
계	676억 8000	557억 3500	-
올림픽 국내·외 홍보	273억 5000	230억	▪ 프레스 홍보 및 공항, 역사, 터미널 광고 등
올림픽 도시경관 개선	50억 6000	35억 6000	▪ 노후불량시설물 개선(183개소) ▪ 야간경관조명, 가로변 배너기, 만국기
문화올림픽 붐업 추진	172억 5000	152억 5000	▪ 권역별 올림픽 사전 붐업행사 ▪ 올림픽 기간 중 문화행사 등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개선	38억 5000	9억 2500	▪ 4개국 안내표시 및 요금표 제작 ▪ 숙식정보 통합콜센터, 숙박시설 개선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강원쇼핑센터 운영	85억	38억	▪ 8도 장터 명품관 설치 운영 ▪ 거점 배후 전통시장 시설개선
올림픽 운영인력 운영 지원	37억	-	▪ 자원봉사자(150개소, 2200명) 및 응원서포터즈(1만5000명)숙식비 방한복 등
비등록 미디어센터 설치·운영	12억	-	▪ MPC 비등록 국내 기자 방송시설(250명)
환경올림픽을 위한 경기장 사면녹화 기반조성	7억 7000	-	▪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복원 위한 자생종차 채취 등 복원 사전준비
한국음식관광 활성화	-	10억	▪ 올림픽 음식 등 한국음식관광활성화
오대산 자연 명상마을 조성	-	82억	▪ 오대산 자연환경 활용 세계적 명상 센터 도약

“적정공사비 실현, 수익성 확보 방안 강구해야”

“집, 철도, 다리, 도로, 상수도 이런 것들은 모두 건설인이 만든 복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한 채 건설하더라도 멋지게 지으면 됩니다.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건설인이구나’라고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조종수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장은 무엇보다 건설인의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를 기록한 이유는 1991년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지난해 대비 11% 증가)한 건설투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일자리 창출 업종이다. 하지만 이런 건설산업의 성과와 거기에 몸담은 건설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이런 현실을 그는 아쉬워했다.

대처 방안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진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임기 동안 500개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낙후 또는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구도심을 정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에 건설인이 적극 나서 ‘멋지게’ 건설하면 존경받는 건설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회장은 “쾌적한 주거환경, 편리한 도로교통, 깨끗한 식수 등을 제공해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는 건설산업이 또 다른 복지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크게 3개 유형으로 구분된 대구형 도시재생을 소개했다. △중구 교통시장-달성도성 일대를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테마형 도시재



**지역사 대다수 공공공사의존
정부 일감에만 집중하지말고
첨단·친환경 등 새 건설수요에
부응하는 노력·역량 강화해야**

생사업’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지구, 빈집, 노후 주택 등이 대상인 ‘공기업 참여 도시재생사업’ 등이다.

이 중 테마형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000억원(국비 1400억원, 시·구비 600억원)을 투입한다. 역사, 문화 등 지역 자산을 복원해 사람 향기가 나는 지역으로 되살리는 게 목표다. 더불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람이 되돌아올 수 있는 주거기반을 갖추는 게 요지다. 2020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마을 공영주차장, 썬지공원,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소규모 도서관, 어린이집, 마을관리소, 커뮤니티센터도 마련한다.

공기업 참여 도시재생사업은 대구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들 도시재생사업 중 어느 게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에 포함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대구의 구도심을 활성화시켜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적 의미가 큰 사업들인 만큼,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돼야 한다는 게 조 회장의 주문이다.

그는 대구시가 마련한 12개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발굴한 사업들이다. 사업 규모와 중요도,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사업비 28조원 규모의 12개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이 중 대표적인 게 대구-광주내륙철도(달빛고속철도) 건설이다. 달빛고속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이자, 총 사업비가 4조8987억원에 달하는 초매머드급 프로젝트다. 조 회장은 “이게 건설되면 영남과 호남의 인적·물적 교류가 늘어나는 동시에, 동서화합도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아울러 △서대구역세권 개발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경부선 대구도심 통과구간 지하화 건설 등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건설업계의 열악한 경영 형편을 해결하기 위해 수주 기회를 늘려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업체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지역 건설업체 대다수가 공공공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일감이 부족하다. 일을 하고도 손해를 보는 구조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적정공사비 실현과 수익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한기자 jobize@